창사 66년 새 역사를 써나가겠습니다
남양건설

광주매일신문

치료 잘하는 병원
친절한 병원
목포 청연한방병원

제8773호 대표전화 (062) 650 - 2000 kjdaily.com 2024년 9월 25일 수요일 (음력 8월 23일)

“무안군수·전남도, 유의미한 약속하면 공항 문제 풀릴 것”

姜시장, 올해말 ‘데드라인’ 재확인…道입장과 평행선
‘내년 6월까지 예비후보지 지정’ 金지사 제안도 거부
10월 무안공항 비전토론회…1조 지원기금 조례 준비
“‘함흥차사’ 사과 놓고 논란이나 시간 허비할때 아냐”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 문제를 놓고 광주시와 전남도 사이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이 24일 “오늘이라도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무안군수와 전남도의 유의미한 약속만 있으면 모든 문제는 그냥 풀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강 시장은 ‘올해 말이 공항 문제 해결의 데드라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김영록 전남지사의 ‘내년 6월까지 예비이전후보지 지정’ 제안을 사실상 거부, 최근 ‘함흥차사’ 발언으로 촉발된 양 시·도간 경색 국면이 해소되기 힘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12월 전남도와 합의서 문안에는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춰 군공항 문제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면 민간 공항을 옮기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의미한 약속’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강 시장은 “정확한 문구는 ‘의미있는 진전’이다. (전남도와) 합의서를 작성한 지난해 12월17일 토론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무엇이냐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었다. 그때도 그 말 자체로 해석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힘들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영록 전남지사가 내년 6월까지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지정과 함께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 이전을 확정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강 시장은 “예비이전후보지 문제를 내년 6월로 가져간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동의하기 어렵다”며 올해 말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이전 후보지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강 시장은 오는 10월 중 무안공항 비전토론회 개최 방침을 분명히 했다.

강 시장은 “오늘 상황회의에서 간부들에게 10월 중에 무조건 무안공항 비전토론회를 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합의서에 소음토론회, 무안 비전토론회, 공항 활성화 포럼 세가지는 딱 못이 박혀 있는 것”이라며 “비전토론회와 관계없이 필요하면 국책사업에 대해 준비된 대로 필요하면 발표도 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강 시장은 “결국 이 문제는 모두가 노력해야 되겠지만 민주당 중앙당이 힘을 보태주고 앞장서줘야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며 “정부도 국책 사업인 만큼 잘 나서줘야 한다”고 정치권과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어 그는 “국책 사업도 발굴해야 하고 또 여러가지 국회의 요구나 국회 토론회를 통해 법 개정 추가 요구도 할 것”이라며 “무안에 주기로 한 1조원 지원과 관련한 지원기금 조례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원기금 조례와 관련, 강 시장은 “기금의 용도와 운영에 있어 구체화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도 쉽지 만은 않은 문제”라며 “전남도가 지원에 대한 보증을 담보로 해달라고 해 조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자꾸 미루고 있어 광주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 조례를 만들기 위해 행안부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광산구와 서구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언급한 ‘함흥차사’ 발언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강 시장은 “전남도의 노력을 못 알아줬다든지, 폄하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지만 있었다면 사과할 일”이라면서도 “지금은 사과를 하느냐, 마느냐를 갖고 논란이나 시간을 허비할, 그럴 때가 아니다”고 전남도와 김 지사가 요구한 공식 사과를 하지는 않았다. 이어 그는 “김영록 전남지사는 무안군 3조원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무안군수와 3자 회동을 안내하고 지난해 12월 (광주시와) 합의문을 발표했다”며 “과거와 비교해 엄청난 노력을 해줬고 전남도의 변화한 모습이기도 하다”고 그동안 전남도의 노력을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강 시장은 “(김 지사와 전남도의)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다만, 양부남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이 한 번 모여 의논하자고 했는데 (김 지사가) 오지 않았다는 뜻으로 ‘함흥차사’라고 얘기를 드렸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김영록 지사는 지난 19일 광주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연말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광주시의 일방적인 데드라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며 “지금 무안군을 설득하는 것은 쉬운 과제가 아니다. (강 시장이) 연말까지 안되면 플랜B 발언하시니, 압박해서 (무안군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광주시의 인식 전환과 함께 ‘함흥차사’ 발언 등에 대한 강 시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김재정·박선강 기자

“건강한 주민생활 누리세요” 24일 오후 광주 북구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팀이 라인댄스를 선보이고 있다. 각 동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마련된 경연대회는 건강댄스와 난타, 사물놀이, 악기연주, 무용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돼 색다른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김애리 기자

Today
‘3高’로 빚 못갚는 소상공인 는다 4면
중고거래 플랫폼 ‘명절테크’ 활기 6면
김도영, 단일시즌 ‘득점’ 신기록 16면

Art Bank ‘예술을 선물합니다’…미술 애호가 이목 집중

27일 광주 ACC호텔 갤러리서 개막
지역 14명 작가 100여점 작품 선봬
판매전 통해 미술시장 활성화 기대

광주매일신문이 지역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작품 판매전에 미술 애호가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27일 오후 5시 동구 ACC디자인호텔 1층 갤러리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일 동안 14명 작가의 작품 전시가 개최된다.

‘Art Bank 예술을 선물합니다’를 주제로 한 판매전에서는 14명 작가가 10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잠재된 역량으로 무한 성장하고 있는 설상호·이철규·전현숙·강남구·조강현, 개성 있는 표현으로 주목받는 이정록·박희정·염순영·진허, 그리고 청년작가 웨이더원·전정연·이다애·전동민·지니킴이 참여한다.

전시에서는 자연에서 포착한 신비로운 생명을 빛으로 표현한 이정록 작가, 화려한 색채 대비를 통해 내면의 이야기를 전하는 전동민 작가, 불완전함에서 비롯되는 관계의 아름다움을 담아내는 설상호 작가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강남구 작가는 생명력을 지닌 자연물을 통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표현한 작품을, 전현숙 작가는 자화상을 통해 또다른 나를 발견하는 자아 성찰의 과정을 보여준다.

다양한 풀꽃의 향연을 담아내는 염순영 작가, 복을 상징하는 돼지를 소재로 행복을 선사하는 이다애 작가 작품도 눈길을 끈다.

산수와 꽃다발로 내면 세계를 표현한 전정연 작가, 관계 맺음에 관한 다양한 형상을 회화에 녹여낸 이철규 작가, 추억의 바나나로 따뜻함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박희정 작가의 회화도 있다.

진허 작가는 나이테로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을 풀어낸 작품을, 조강현 작가는 자연의 능선을 통해 심상적 풍경을 보여줄 예정이다.

지니킴 작가는 젤리를 연상시키는 마티에르로 일상 속 소중한 시간을, 웨이더원 작가는 현대인의 감정 스위치를 자극하는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펼쳐낸다.

이경수 광주매일신문 대표이사는 “이번 판매전은 지역의 유망한 젊은 작가 14명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작가와 컬렉터의 예술 동반자로서 역할을 하며 예술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명진 기자

배추 1포기에 1만2천원…소비자·상인 ‘한숨만’

양동시장 전년 동월 대비 76%↑…정부, 배춧값 잡기 위해 수입 추진

올해 여름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해 배추 1포기 가격이 1만원을 넘어섰다.

2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가격정보 2천416호와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전날 기준 광주 양동시장에서 고랭지 배추 1포기(2-3kg)는 1만2천원에 판매됐다. 2주 전 1만원보다 20%, 1년 전(6천830원)과 비교할 때 75.69% 상승한 가격이다.

김장에 필요한 재료인 무와 붉은고추 가격도 올랐다. 같은 날 양동시장에서 고랭지 무 1개 가격은 4천495원으로 지난해(2천350원)보다 91.27% 높았다. 붉은 고추는 2천270원으로 2주(2천50원) 전 보다 10% 가량 올랐으나 지난해(2천255원)와 큰 차이는 없었다.

열무도 1kg에 4천230원으로 지난해(3천680원)와 비교하면 14.94% 올랐다.

급등한 배춧값에 김치 제조업체도 선별 판매에 나서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동구에서 김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대표는 올해 배추 김치를 포기하고 얼갈이 김치만 판매하고 있다. 김 대표는 “배춧값이 예년에 비해 많이 상승했고 생산 물량도 적어 올해는 배추김치를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근 한 마트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매대에는 알배추만 판매하고 있었으며 김장용 배추는 예약으로 주문이 가능했다. 마트 주변에 거주하는 황모(48·여)씨는 “한 망에 3만원이 넘는다고 해 살 엄두가 나지 않았다”며 “대형마트 할인 행사나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2면에 계속 /안태호 기자